



# 인문대학 소식지

2023학년도 제2호 (통권 31호)



인문대학 행정실 | (61186)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 062)530-3117 | 발행인\_이성원 기획\_이준환 편집\_김성영 | <http://human.jnu.ac.kr>

권두언 | 이주노 중어중문학과 교수

## 有始有終

정년퇴임을 앞두고 그동안 읽어왔던 서적들을 정리하고 잡다한 물건들을 내다 버렸다. 딱 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이렇게 정리하는 틈에 컴퓨터 파일도 정리하였다. 언젠가는 보완하여 연구논문으로 써보리라 작성하고 여기저기 모아두었던 파일들이었다. 파일을 정리하다가 오래전에 작성한 글을 한 편 보게 되었다. 내용을 읽어보니 이전에 근무했던 대학교 교원 시절에 쓴 글이었다. 학과장을 맡고 있던 터에 학과 문집의 출간을 앞두고 학생대표로부터 권두언 성격의 글을 써달라고 부탁받은 것이었다. 그런데 글 내용이 가관이었다. 글을 쓸 당시 내 나이 마흔이었던 모양인데, 마흔 살에 대한 두려움과 설렘, 삶의 무게와 부피 등을 토로하고 있었다. 어쩌자고 갓 스물 푸르른 청춘들에게 권두언이랍시고 이런 글을 썼단 말인가?

그로부터 스물다섯 해가 지난 오늘, 그 글을 읽다 보니 지난날이 그림자다. 그 시절 나의 젊음과 터무니없는 패기가 그림고, 함께 맥주잔을 기울이던 동료도 그림고, 운동장을 함께 뛰던 학생들이 그림고, 그림자 보니 나만 보면 꼬리를 내리고 도망치던 들고양이까지도 그림자다. 그리운 사람들 가운데에는 이미 저 세상으로 간 이도 있고, 몸이 편치 않다고 소식을 알려온 이도 있지만, 그래도 어느 곳 어느 자리에서건 열심히 뛰고 있는 아들이 더 많이 있어 위안이 된다. 이들 모두가 나의 삶의 마디를 옹골치게 만들어준 고마운 분들이다.

나는 대나무가 곳곳하게 우뚝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마디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뿌리가 흙덩이를 힘차게 움켜쥔 채 넓게 뻗어 있어서 더욱 그럴 것이다. 누군들 대나무를 좋아하지 않는 이가 있을까만, 어린 시절 고향의 옛집 뒤뜰에 자라난 대나무는 늘 소중한 추억으로 남아있다. 여름날 대청마루에 누워 대나무 스치는 바람소리를 듣노라면, 캄캄한 한밤중 잠자리에 누워 니뭇잎에 듣는 빗소리만큼이나 마음이 고요해진다. 아마도 풋내나던 대학생 시절 방자하게도 차라리 부러질지언정 휘어지지 않는 것만 같던 대나무처럼 살겠다면



녹죽(강세황, 간송미술관)

다짐은 어린 시절 대나무와의 고왔던 인연 때문이었으리라.

이제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이에 같은 마디 가운데에서 가장 크고 단단한 마디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마디를 열려고 한다. 어쩌면 이 새 마디가 지금까지의 어떤 마디보다 더 크고 의미 있는 마디가 될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새로운 마디의 시작은 연하고 뽀얗다. 이 새 마디에는 여러 가지를 담고 싶다. 우선 기타를 제대로 배워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을 서둘게나마 완주하고 싶다. 열심히 배우다 보면 아내의 오카리나에 맞추어 그럴싸한 합주를 할 수도 있을 게다. 다음은 바리스타 공부를 더 해보고 싶다. 찾아온 벗들에게 먹음직한 커피를 대접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일 게다. 그 다음은 요리를 배워보고 싶다. 대학원생 시절에는 자취한 덕분에 요리를 제법 했었는데, 몇십 년 손을 놓았더니 입맛도, 손맛도, 눈맛도 예전 같지 않지만, 어쨌든 기회가 닿으면 도전해보고 싶다.

마흔 살의 권두언에서는 흥미롭게도 역시 마흔 살의 아버지를 떠올리고 있었다. 마흔 살의 목수인 아버지는 국민학교에 입학한 아들을 위해 책상과 의자를 만들어주셨다. 당시 대패밥에서 묻어나오던 나무내음이 지금도 코를 간질거리고, 대패를 밀던 아버지의 팔뚝에 흐르던 땀방울이 눈에 밝힌다. 나이 예순다섯의 아버지의 품모는 박사학위논문 작성에 정신이 없었던 나의 기억에 남아 있는 게 별로 없지만, 상수(上壽)에 다다른 아버지의 아원 몸은 매일처럼 나와 마주한다. 먼저 가신 어머니, 머잖아 떠나실 아버지는 내게 죽음을 가르치시고, 그리하여 삶의 의미를 음미하게 하셨다. 그래서 어느 누구의 부모이든 우리의 가장 위대한 스승이시다. 나의 새로운 마디에 삶과 죽음에 대한 성찰을 담고 싶다.

그나저나 이 글을 읽을 이들은 아직 젊어 혈기왕성할 터인데, 나는 어쩌자고 이런 뉘드리를 이별의 말로 남기고 있는 걸까?

## Contents

- 02 전국 인문대학장의 입장문
- 03 교직원 동정
- 04 인문대학
- 05 함께하는 인문학
- 06-10 인사
- 11-13 학과 및 협동과정
- 14-15 연구소
- 16-17 사업단
- 18-19 신간 도서
- 20 광고

## 교육부가 추진하는 무전공 모집에 대한 전국 인문대학장의 입장문

현재 우리나라 대학은 학생 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시 혁명이라는 외부 환경의 변화, 그리고 10여 년째 이어지고 있는 등록금 동결이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연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교육부가 느닷없이 내년 입시부터 일정 비율 이상을 무전공으로 모집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대학 사회는 극심한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이에 전국국공립대학교 인문대학장 협의회(이하 '국인협')와 전국사립대학교 인문대학장 협의회(이하 '사인협')는 이 정책이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것을 우려하여 오늘 이 입장문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무전공 모집의 취지가 제대로 구현되기 어려우며, 일부 전공으로의 쏠림 현상으로 인해 교육 환경이 더 열악해질 위험이 있습니다.**

교육부가 정책 연구진의 안이라고 명명하는 세 쪽짜리 「대학혁신지원사업 개편안 시간」에 따르면, 무전공 모집은 “학생들이 대학 입학 후, 적성과 흥미에 맞는 전공을 찾아 선택하여 교육받을 수 있는” 학생 전공 선택권 확대를 주요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현재와 같이 전공 선택에서 소수 인기 학과로의 쏠림 현상이 극심하게 나타나는 상황에서 이 취지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대학에서 1년가량 수학한 후 적성에 맞는 전공을 선택하기보다 결국 시류에 따라 인기 학과를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도 인기 학과에는 복수 및 다전공 제도와 전과 제도 등을 통하여 지나치게 많은 학생들이 몰려와서 교육 여건이 열악하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무전공 모집 제도까지 도입되면 이 상황은 더욱 악화할 것이 자명합니다. 이것은 해당 학과뿐만 아니라 그 학과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일입니다.

**둘째, 대책 없는 무전공 모집 제도의 도입은 학문 생태계의 위기를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기초 학문의 붕괴도 가속화할 것입니다.**

대학은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인재를 교육해야 하며, 동시에 연구를 통해 학문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자연이 다양한 종들의 상호 관계 속에서 건강한 생태계를 이루면서 유지·발전하듯이, 학문도 다양한 분야가 서로 의지하고 도우며 생태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생태계를 이루는 한 축이 무너지면 생태계가 건강하게 유지·발전할 수 없는 것은 자연이나 학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학문의 다양성은 학문 발전의 전제이며 국가 발전의 초석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학문 생태계는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의료계의 상황에서 목도하고 있는 것처럼, 특정 분야로의 인재 쏠림은 우리 사회 발전을 저해합니다.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10여 년간 운영되었던 학부제가 결국 인기 학과와 비인기 학과 사이의 심각한 양극화와 전공 선택에서의 지나친 쏠림으로 인해 인문학을 비롯한 기초 학문의 위기를 초래하였기 때문에 결국 폐지되었던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대책 없이 무전공 모집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이미 건강한 상태가 아닌 우리나라의 학문 생태계는 더 많이 무너질 것이 자명합니다. 학문 생태계의 붕괴는 국가의 위기로 직결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셋째, 학생 모집 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충분한 의견 수렴이 선행되어야 하고, 대학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현행 학과제 중심의 학생 모집 제도에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와 의견 수렴, 그리고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한 대책 수립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며, 무전공 모집 학생들의 교육을 위한 제도 수립과 인프라 구축도 선행되어야 합니다. 1월 하순에 접어든 지금까지 교육부는 구체적인 추진 계획도 부작용에 대한 대책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데, 대학들은 곧 무전공 모집을 포함하는 입시 요강을 발표해야 하고, 내년 3월에는 무전공 모집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교육 제도의 변화를 어떻게 1년도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추진할 수 있는 것입니까.

**넷째, 이미 대학들은 학생의 전공 선택권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습니다.**

현재 대학들은 각 대학의 교육 철학과 인재상에 따라 학생의 전공 선택권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대학이 입학 정원의 일부를 무전공으로 선발하고 복수 전공이나 다전공 제도를 강화하며 전과 제도로 더욱 활성화함으로써 학생들이 적성에 맞는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넓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가 갑자기 일정 비율 이상을 무전공 모집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대학의 노력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학부제 폐지 이후 지난 10여 년간 서서히 안착한 현재의 제도를 다시 학부제 시절의 문제적 상황

으로 되돌리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사실 대학의 모집 단위는 해방 이후 학과제, 1970년대 계열별 모집, 1980년대 학과제를 거쳐 1990년대 후반에 학부제가 도입되었고, 2010년대에 다시 학과제로 회귀함으로써 학과제와 무전공 모집 사이를 10여 년 주기로 오갔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학과제로 회귀한 후 10여 년이 지났으니 다시 무전공 모집 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올 시기가 되기는 했습니다만, 언제까지 동일한 시행착오를 반복해야 합니까.

**다섯째, 사회 각 분야에 우수한 인재가 골고루 진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각 분야에 우수한 인재가 골고루 진출해서 해당 분야의 발전에 기여할 때, 국가가 발전하고 경제가 성장하며 국민들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현재 특정 분야로 인재가 몰리는 쏠림 현상이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어떤 분야에는 인재가 넘치고 어떤 분야에는 사람 구하기 어려운 부조화 상황이 고착화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정부는 이 상황을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은 무전공 모집안은 철회하고, 점점 악화하고 있는 부조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대학과 함께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학혁신지원사업 개편안 시간」에 따르면, 대학혁신지원사업은 “대학이 수립한 자율혁신계획을 통한 체질 개선으로 양질의 대학 교육 및 미래 인재 양성 추진”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학의 자율성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으니, 대학의 혁신 계획도 각 대학의 교육 이념과 특성에 맞춰 자율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국공립대학교와 사립대학교의 설립 목적이 다르고, 수도권 대학과 비수도권대학의 상황이 다르며, 또 대학마다 고유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하지 않고 무전공 모집 비율을 획일적으로 정하여 추진하는 교육부의 무전공 모집안은 교육적으로도 매우 부적절합니다. 대학은 각 대학의 교육 이념과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학생 선발 방식을 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교육부는 재정 지원을 구실로 대학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어느 선진국의 정부가 대학의 일에 이렇게 깊이 개입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학에 대해 제도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정부의 일이고,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은 대학의 몫입니다. 그리고 10여 년째 등록금이 동결됨으로써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에 처한 대학들이 정부의 재정 지원을 외면하기 어려운 점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도 재정 지원을 구실로 대학의 일에 깊이 개입하려는 교육부의 시도를 과감하게 거부하고 대학의 교육 이념과 철학을 굳건하게 지키는 모습을 보여 줌으로써, 헌법이 보장하는 자율성을 스스로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국민협과 사인협은 교육부에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1. 교육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무전공 모집 계획을 즉시 중단하고, 모집 단위를 비롯한 학사 제도의 수립과 운영을 대학의 자율에 맡겨야 합니다.
2. 교육부는 재정 지원을 구실로 대학의 운영에 개입하는 일을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합니다.
3. 교육부는 대학과 협의하여 무너져가고 있는 학문 생태계를 복원하고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4. 교육부는 대학과 협의하여 우리 사회의 각 분야에 우수한 인재가 진출함으로써 국가가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국민협과 사인협은 각 대학에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1. 대학은 교육부가 일방적이고 획일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무전공 모집안에 대한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각 대학의 교육 이념과 특성에 맞는 학생 모집 및 교육 제도 수립을 위해 학내 구성원들과 진지하게 논의해야 합니다.
2. 대학은 학문의 다양성을 유지하고 우리나라의 학문 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3. 대학은 정부와 함께 우수한 인재가 우리 사회의 각 분야에 골고루 진출함으로써 국가와 산업이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4. 대학은 교육부가 재정 지원을 구실로 대학의 일에 개입하려는 시도를 단호하게 거부하고,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대학의 자율성을 수호해야 합니다.

### 교직원 동정

#### 검 무

##### 본부

- 일어일문학과 교수 김성은**  
- 인사위원회 위원  
2023. 11. 1. ~ 2024. 10. 31.
- 공채공정관리위원회 위원  
2023. 11. 1. ~ 2025. 10. 31.

- 사학과 교수 김병인**  
- 교학부총장  
2024. 2. 1. ~ 2026. 1. 31.

##### 부속시설

- 국어국문학과 교수 백현미**  
- HK인사위원회 위원  
2023. 9. 11. ~ 2025. 9. 10.

- 영어영문학과 부교수 강의혁**  
- 언어교육원 교육·연구부장  
2024. 2. 1. ~ 2026. 1. 31.

- 일어일문학과 교수 김성은**  
- 언어교육원 운영위원회 위원  
2024. 2. 1. ~ 2026. 1. 31.

#### 정년·명예퇴직

- 2024. 2. 28일자**  
- 불어불문학과 류재한
- 불어불문학과 최민
- 중어중문학과 이주노

#### 연구년

- 국어국문학과 김대현**  
2024. 3. 1. ~ 2024. 8. 31.

- 국어국문학과 임환모**  
2024. 9. 1. ~ 2025. 2. 28.

- 국어국문학과 조재형**  
2024. 9. 1. ~ 2025. 8. 31.

- 독일언어문학과 조자경**  
2024. 3. 1. ~ 2024. 8. 31.

- 불어불문학과 민진영**  
2024. 3. 1. ~ 2025. 2. 28.

- 중어중문학과 오만종**  
2024. 3. 1. ~ 2025. 2. 28.

- 일어일문학과 김성은**  
2024. 9. 1. ~ 2025. 2. 28.

- 철학과 김상봉**  
2024. 9. 1. ~ 2025. 2. 28.

- 철학과 양순자**  
2024. 9. 1. ~ 2025. 2. 28.

#### 학과장 / 주임교수 / 사업단 / 연구소

- 독일언어문학과 교수 조자경**  
- 독일언어문학과장  
- 대학원 독어독문학과 주임교수  
2023. 9. 1. ~ 2025. 8. 31.

- 중어중문학과 교수 장춘석**  
- 대학원 한문고전번역협동과정 주임교수  
2023. 9. 1. ~ 2025. 8. 31.

- 영어영문학과 부교수 강의혁**  
- 영어영문학과과장  
- 대학원 영어영문학과 주임교수  
2024. 1. 1. ~ 2025. 12. 31

- 일어일문학과 교수 정승운**  
- 일어일문학과과장  
- 대학원 일어일문학과 주임교수  
2024. 1. 1. ~ 2025. 12. 31

- 일어일문학과 교수 김정례**  
- 일본문화연구센터장  
2024. 1. 8. ~ 2026. 1. 7.

#### 인사발령

##### 2023. 9. 1. 자

- 신임**  
- 국어국문학과 조교수 김현정
- 국어국문학과 조교수 정민구
- 사학과 조교수 김한결
- 철학과 조교수 이지선
- 호남학연구원 부교수 김봉국

- 승진**  
- 철학과 이원석 조교수 → 부교수

- 정년보장**  
- 호남학연구원 김경호 부교수 → 교수(정년 보장)
- 호남학연구원 김창규 부교수 → 교수(정년 보장)

##### 2023. 9. 25. 자

- 인문대학 행정실장 김희영

##### 2024. 1. 22. 자

- 일어일문학과 조교 유지연

인문대학

인문대학 2호관 철거 전 기념사진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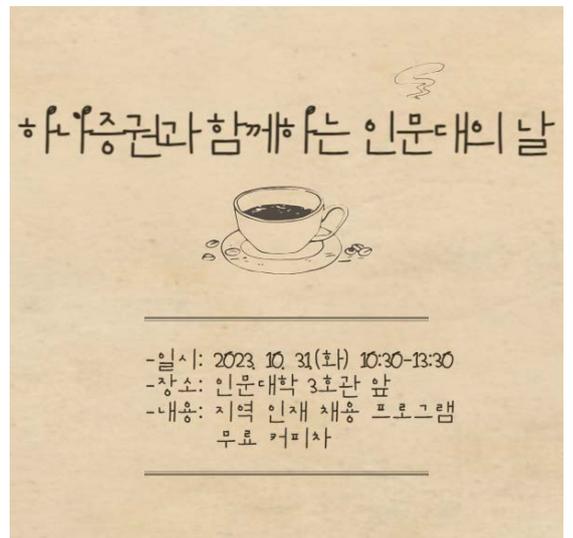
인문대학 2호관 증개축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2023년 11월 8일~9일 해당 건물이 철거되기 전 인문대학 교직원 등이 모여 마지막으로 해당 건물을 사진으로 기록하고자 모였다.

인문대학 2호관은 1978년 준공 이래 42년이 경과된 노후화된 건물로, 내진 보강(~2022년), 석면 교체(~2024년) 공사가 예정되어 있었으며, 창호 교체(128개소) 및 내·외부의 재도장이 필요한 등 건물을 유지 보수하기

위한 비용이 꾸준히 요구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건물 정밀안전진단 결과, C 등급(2018년) 판정으로 구조물 내구성과 안전 문제에 관하여 장기적인 유지 관리 계획 수립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인문대학 2호관 증개축사업의 추진으로, 학생 교육·연구를 위한 교수연구실 환경 개선을 통해 연구력을 증진 및 안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나증권과 함께하는 인문대의 날



하나증권과 인문대학(학장 이성원)이 10월 31일 오전 10시 반부터 오후 1시 반까지 인문대학 3호관 앞에서 약 300잔의 커피를 무료로 제공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하나증권과 함께하는 인문대의 날로 기획된 본 행사는 하나증권에서 전남대 인문대학을 방문하여 지역 인재 채용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특히 인문대 구성원을 대상으로 무료 커피차 행사를 진행하였다.

함께하는 인문학

2023년 하반기 <함께하는 인문학: 인문학의 새물결 누벨바그>

인문대학이 자랑하는 인문학 과정 (함께하는 인문학)이 2023학년 2학기에도 진행됐다. 학내 국성원은 물론 지역 시민들의 높은 호응 속에 지난 학기 성료되었던 <함께 하는 인문학>은 2학기를 맞아 「인문학의 새 물결(누벨바그)」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기획되었다.

교육입국의 기치하에 전쟁의 상흔이 가득한 폐허 속에서 건학을 수립한 전남대학교와 인문대학은 작년 개교 70주년을 맞이하였으며, 급변하는 세계사적 조류와 사회적 요구에 맞추어 끊임없이 새로운 모색을 시도하였다. 그 사이 많은 선학들이 견고하게 다져 준 인문학의 터에 인문대학은 최근 최고의 인문학자들을 신진 연구자로 맞이해 왔다.

특히 최근에 임용된 인문학자들은 디지털 혁명과 AI시대에 조응하기 위해 새롭고 과감한 시도를 하고 있으며, 개인적으로도 공학과 인문학, 자연과학과 인문학, 혹은 미술과 인문학 등 다채롭고 융복합적인 학위 과정을 노정한 연구자들이 두드러진 추세로 나타났다.

이에 2학기 <함께 하는 인문학>은 ‘누벨바그’의 지향으로 종합하여 이러한 인문학의 새로운 경향과 트렌드, 그리고 흥미로운 융복합적인 인문학 담론을 공유하고자 기획되었다. 끝으로 12월에는 한중 수교 30년을 보내며 평생 중국 문학과 중국학에 매진하였던 이주노 교수(중어중문학과)를 모시고 그의 학문적 여정과 전공의 얘기를 나누며 마무리되었다.

구분	일시	강의 주제 / 강사
1차	2023.9.21.(목) 18:00~20:00	데이터 시대의 어휘연구 최준(국어국문학과)
		프랑스 중세 문학 속의 사람들 문성욱(불어불문학과)
2차	2023.10.19.(목) 18:00~20:00	회화로 보는 근대 유럽의 표상들 김한결(사학과)
		물리학자, 그리고 여성주의-오펜하이머를 중심으로 이지선(철학과)
3차	2023.11.30.(목) 18:00~20:00	디지털 시대의 문화 실천을 위한 글쓰기 김현정(국어국문학과)
		우리가 몰랐던 광주의 시인들 정민구(국어국문학과)
4차	2023.12.14.(목) 18:00~20:00	현대 소설을 통해 이해한 중국학의 여정 이주노(중어중문학과)



## 인사



**임채광**  
불어불문학과 교수

## 인문학 연구자를 위한 변명

강사로 강의해 온 10여 년의 시간을 더하면 강의를 해 온 지 30년이 넘는 것 같습니다. 덕분에 연구자로서의 자세는 교수 발령을 받고 난 이후에도 지켜낸 것 같습니다. 강의 초반에 들을 때는 이해가 되지만 강의실을 벗어나면 이해가 잘되지 않는다는 여러 학생들의 강의 소감이 매우 당혹스러웠습니다. 그 이후 강의평가 결과를 애써 외면하면서 난이도를 낮추지 않으면서도 학생들의 집중력을 끌어내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심을 거듭했습니다. 문학을 시대와 현실에 관련짓고, 작품을 사람과 일상에 대입하면서 점차로 강의자와 학생 간의 거리도 줄어들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처음부터 공부 잘하는 학생이 없듯 원래 좋은 선생도 없다는 것은 씁쓸한 만큼 고무적이기도 한 교단의 진실인 것 같습니다.

강의가 지적 노동이라면 연구가 오히려 육체노동이라는 인상을 받아왔습니다. 작품을 전체적으로 그리고 깊이 있게 본다는 것은 참고 자료를 좀 더 충실하게 독서하고, 이질적인 구성 요소들 사이에서 상호관계를 찾아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료를 많이 접할수록 나의 생각이 거대한 지적 유산의 왜소한 구성요소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지만, 일관된 시각을 만들어 보고자 힘을 들여온 것 같습니다. 보편성에 대한 진지한 추구는 학자의 개인적 정체성을 위협해서 권력이나 물질 등 실체가 있는 현실에 대한 유혹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요지의 김우창 선생님의 통찰이 상기됩니다. 방대한 자료의 크기, 보편적 진실의 바닷속에서 살아남기의 학문적인 노력이란 인문학 전공자의 실존적 외로움에 대한 저항의 형식이 아닌가 합니다.

학문적으로 정체성을 형성해 가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지만 자기 이해의 진전은 또 하나의 보람이었습니다. 프랑스 고전주의 시대 연구 공부는 그 시대 인간들의 삶과 문학에 대한 객관적인 파악에 덧붙여 다른 시대, 다른 상황 속에서 살고 있는 연구자 개인에 대한 이해도 도와주었습니다. 극작품 속의 인물들을 희극적인, 비극적인 희생자로 몰고 가는 정념, 맹목, 허영의 양상들은 10년 전쯤부터 크고 작게, 구체적이면서도 잠재적인 요소로서 나를 이야기하고 묘사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경험하는 자기 발견의 놀라움과 부끄러움 그리고 받아들임의 과정은 기실 아리스토텔레스가 시학에서 말한 공포와 연민의 체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았으니 견딜 만했고, 혼자 이룩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니 뿌듯한 이 독서 행위는 쓸쓸한 인문학 전공자에게 주어지는 고유한 보상이라는 느낌입니다.

그러니 각별하게, 손에 잡히는 보수나 눈에 보이는 평가가 따르지 않아도 묵묵히 연구를 계속하고 있는 인문학 연구자들에게 용기를 내시라고, 자신을 통해서 인간과 세상을 보는 법을 찾아가는 것이 인문적 가치의 출발이라는 말씀으로 인사에 갈음합니다.



**김한결**  
사학과 교수

## 전남대라는 새로운 세상 앞에서

숨 가쁘게 지나 보낸 전남대학교에서의 첫 학기는 아직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지고 얼떨떨한 와중에도 감사함을 종종 되새기는 시간이었습니다. 강의실에서 학생들을 만나는 순간에는 다른 모든 생각을 잊었지만, 가족을 두고 혼자서 광주에 온 저로서는 일과가 끝나면 교수로서의 자각보다는 유학생 시절의 감각이 날카롭게 되살아나는 때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때마다 제 안부를 걱정하고 곁에서 살뜰히 챙겨주신 인문대학의 동료 선생님들과 학생들 덕분에 이곳이 내가 속한 곳이라는 확신과 안정감을 매일 쌓아나갈 수 있었습니다. 연구자로서, 교육자로서, 그리고 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제 정체성과 제 작업의 의미를 더욱 단단히 버려나갈 기회를 얻은 것에 다시금 감사하게 됩니다.

저는 사학과 안에서도 ‘서양근세사’ 전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서양의 근세(Early Modern)라고 하면 대략 16세기의 르네상스부터 18세기 말 프랑스혁명까지를 포함하는 대단히 흥미롭고 중요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원래 전공은 서양근세미술사와 박물관사(및 이론)입니다. 혁명 전후 프랑스에서 ‘과거의 거장’들을 민족과 국가의 이름으로 기념한 이념적 바탕을 추적하고, 공공 박물관(또는 미술관)이라는 새로운 공간에서 이들의 작품을 어떻게 전시했으며 또 어떻게 역사적으로 서술했는지 문제가 제가 박사과정 동안 공부한 내용입니다. 정말 재밌는 주제가 아닌가요? 하지만 22년 늦가을 한 지면에서 저는 제가 선택한 전공이 “인문학 분과 가운데서도 ‘마이너한 학문’”이라고 설명하며 국내 학술장 안에서 스스로 “꺾두기”내지는 미운 오리 새끼”처럼 느껴지기도 한다고 쓸쓸하게 토로한 적이 있습니다. 그 글을 쓰고 1년도 채 되지 않아 사학과에 동지를 틀게 된 것입니다. 저처럼 연구주제도 한국에서 흔치 않은 데다 이른바 ‘융합’ 학문을 하는 인문학 연구자가 전남대학교처럼 훌륭한 대학교에 자리를 잡은 것을 두고 주변 사람들은 ‘인간 승리’라고 합니다. 이는 결코 제 자량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제게 이것이 특별하고 소중한 기회였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 감사한 기회를 헛되이 하지 않고 학교와 학생들을 위해 더욱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제가 아직은 서투른 점이 많아 선생님들께 여러 번 더 조언을 여쭙고 도움을 구하겠지만, 지난 학기 내내 그러셨던 것처럼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끌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수업을 할 때나 학생들과 면담을 할 때 늘상 되새기는 것은 ‘내가 사학과에 들어가 서양사 전공을 택했는데 만약 교수가 김한결이라면?’이라는 자문입니다. 내가 대학시절 만날 수 있었던 전공 교수가 나였다면 나는 나중에 그 4년의 시간을 어떻게 기억할까? 나는 그에게서 사학과 학생으로서 배워야 할 것을 전부 배웠을까? 다른 대학 사학과 학생들과 만났을 때 내 교수가 김한결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을까? 이러한 물음들을 이어가다보면 잡다한 걱정거리나 고민들은 어느새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너는 외국인이니까) 사료 같은 거 볼 생각하지 말고 있는 책이나 읽으면 된다,’ 또는 ‘(너는 외국인이니까) 발표에 관한 욕심 내지 말고 써와서 읽거나 하면 된다’는 말을 듣던 학생이 (물론 저는 따르지 않았습디다) 이제는 이렇게 제법 선생 흉내도 내고, 인생 참 두고 볼 일입니다. 제게 멋진 새 세상을 열어주신 사학과와 인문대학, 전남대학교 식구들께 두고두고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김현정**  
국어국문학과 교수

## 학문공동체 안에서 함께 성장하며 비상하는 삶을 꿈꾸며

한때 저는 인문학 연구란 혼자만의 깊은 사색과 통찰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 홀로 연구 주제와 방법 등을 고민하며, 좀처럼 풀릴 것 같지 않은 매듭을 풀기 위한 혼자만의 시간이 길었습니다. 그러나 인문학을 포함한 모든 학문은 사람과 사람의 만남 속에서 서로의 대화를 통해 그 속에 담긴 참된 진리를 찾아내는 학문이라는 것을 전남대여러 공동체 속에서 만난 소중한 인연들 덕분에 찬찬히 알아가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좋아하던 제가 공동체 안에서 참된 성장의 기쁨을 누리게 될 수 있었던 소중한 경험들은 전남대가 저에게 베푼 값진 선물과도 같습니다. 이제는 제가 전남대의 전임교원이 되어 성장의 경험을 함께 나누고 또 다른 비상을 꿈꿀 수 있게 되었음에 무한한 감사를 느낍니다.

저는 국어국문학의 융합과 확장을 모색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의 하나로서 국어국문학과에 임용되었습니다. 대화주의 글쓰기 방법론 연구를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고, 지속해서 서사적 글쓰기를 비롯한 여러 글쓰기 이론과 실천 방향 등을 연구해 왔던 저는 글쓰기를 확장한 다양한 리터러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국내에서는 2000년대 무렵에서야 본격적으로 글쓰기를 연구 대상으로 삼아왔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앞으로 글쓰기를 비롯한 리터러시 연구의 확장 가능성은 매우 크리라 봅니다. 이에 저는 서사 창작과 리터러시 관련 응용 연구를 기반으로 전남대가 미래 사회의 창의적 융합 정신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데 미력하나마 기여하고 싶다는 소망을 지녀봅니다.

제가 이러한 소망을 갖게 된 것은 전남대 안에서 제가 직접 보고 느낀 값진 경험들 덕분입니다. 저는 교육혁신본부의 전신인 교육발전연구원과 기초교육원에서 10여 년 동안 대학필수 ‘글쓰기’ 교과 운영 및 평가 업무와 함께 ‘글쓰기 상담실’ 운영을 담당해 왔습니다. 또한 교양교육과정 운영·평가·연구 업무를 담당하면서 대학 교육의 중요성을 몸소 체험해 왔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이후 제가 전남대 국어국문학과 BK21 PLUS 사업단의 신진연구인력으로 사업단에 참여하면서 함께 연구하고 고민하는 공동체의 소중함을 깨닫는 경험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즉, 혼자만의 인문학이 아닌 더불어 고민하고 상생하는 공동체의 모습을 BK21 PLUS 사업단에 참여하면서 배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전남대는 저에게 늘 새로운 도전과 희망을 품게 합니다. 때로는 제 앞에 놓인 도전적인 상황이 가슴 무겁게 다가오기도 하고, 때로는 저의 도전이 실패로 끝나기도 하지만, 이러한 도전이 결국은 저를 성장하게 했음을 기억합니다. 2023-2학기에 전남대 전임교원으로서의 내디뎠던 발자취를 되돌아보면 아쉬움도 남지만, 이러한 저의 부족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인문대 구성원으로서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여러 교수님과 직원분, 무엇보다도 함께 소통해 준 학생 덕분에 다시 새롭게 시작할 용기를 얻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겠지만 학문공동체라는 울타리 안에서 여러 구성원과 함께 더 큰 성과와 비상을 이야기할 수 있는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지선**  
철학과 교수

## 꿈 같던 첫 학기를 보내고 새로운 꿈을 시작하며

과학, 예술, 철학. 프랑스 철학자 질 들뢰즈가 인간 정신의 정수로 꼽은 삼위(三位)입니다. 저는 제 자신을 소개할 때, 이를테면 첫 수업 시간에, 이 세 단어로 시작하곤 합니다. 그리고는 이것이 제가 가장 중요하고 또 소중하게 생각하는 세 가지로 이 셋의 경계에서 사유하는 것을 평생의 과업으로 삼고 있노라고 말합니다. 어린 시절 과학도를 꿈꾸었다가, 이제는 철학도의 길을 걷게 되었으며, 이 모든 여정에서 예술과는 때로는 이상으로서 때로는 위안으로서 늘 함께 해왔다는 말을 덧붙이기도 합니다.

저는 학부에서 물리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런데 미적분학, 전자기학, 실험과 같은 전공 과목보다 교양 수업에서 접한 인문·사회과학에 큰 흥미를 느꼈습니다. 과학만이 진리를 추구하는 엄밀하고 객관적인 방법이라 생각했던 제게 철학이 과학의 방법이나 진리의 본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방식은 충격과 감명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철학은 저의 부전공에서 주전공이 되었고 나아가 제 인생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과학을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닙니다. 철학 중에서도 주로 과학의, 과학에 관한, 과학을 위한 철학이라 할 수 있는 과학철학, 그리고 사회과학 및 자연과학을 포함하는 과학과 지속적인 대화를 추구하고 또 그 성과들을 적극적으로 참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랑스 철학을 공부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지난 학기 이곳 철학과에 왔을 때 안팎의 많은 구성원들이 제가 프랑스 철학 전공자라는 사실을 반겨 주셨습니다. 연구자로서 그리고 교수자로서 자신의 분야를 인정받는 것만큼 뿌듯하고 기쁜 일이 또 있을까요? 그렇게 저는 연구를 지속하고 더욱 발전시킬 동기와 명분을 얻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같이 프랑스에서 공부하고 이제는 이웃 학과에서 일하게 된 선배와 동기 교수님들이나 같은 학과에 계시면서 전공이 다른 교수님들로부터는 여러 가지 의미와 방향에서 자극을 받았습니다. 마침 지난 학기부터 시작된 현암 이을호 기념강좌도 이전까지 동양철학을 접해보지 못했던 제게는 더할 나위 없는 배움의 기회였습니다.

매 학기, 아니 매 시간 최선을 다해 수업을 준비하려 하지만, 늘 어려움을 느끼곤 합니다. 대학 수업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고, 제 자신이 바로 그 사례 중 하나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더욱 어깨가 무거워집니다. 특히 이번에는 첫 학기인데다 전공도 아니고 수업을 해본 적도 없는 윤리학을 맡게 되어 한층 부담을 느낀 것이 사실입니다. 이 사회에 팽배한 학력주의와 능력주의를, 한편으로는 수혜를 다른 한편으로는 폐해를 동시에 입고 있는 당사자의 관점에서, 문제를 직시하고 토론해 보자고 용기를 내어 제안하기까지는 적잖은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은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참여해 주었습니다. 수업 전에 다소나마 주저한 것이 무색하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지난 학기 이곳 철학과에 오면서 정말 많은 축하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좋은 도시, 대학, 학생이 있는 도시에서 꿈꾸던 바를 이루라”는 인사가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제게는 이 도시와 이 대학이 학과에서 일하게 된 것이야말로 꿈만 같았고 아직까지도 그렇습니다. 새로운 곳에 적응하는 일이 쉬웠을 리 만무하겠습디만, 선배 교수님, 동기 교수님, 조교님, 학부와 대학원의 학우님 모두의 진심 어린 환대 덕분에 낯설음을 느낄 새도 없이 첫 학기가 지나갔으니, 이 또한 꿈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두 번째 학기를 앞두고 있는 지금, 이제는 꿈에서 깨어야 할 때인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앞으로 또 어떤 꿈이 펼쳐질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꿈꾸던 바를 이루어 가면서 동시에 계속해서 새로운 꿈을 꾸려 합니다.



정민구  
국어국문학과 교수

## 찬란한 설렘의 첫 학기여, 안녕!

임용되고 나서 이제 한 학기를 지나 보내고 있습니다. 신입 교원으로서 꼼꼼하게 시간을 관리해 보고자 마음먹었지만, 따라갈 수 없는 시간의 유속을 다시 한번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속도를 붙이며 흘러가고 있는 시간을 눈앞에 붙잡아 둘 수 없는 이 시점에서, 지구의 곳곳에 생긴 생채기로 인해 이상 한파가 몰아칠지도 모르는 이 겨울의 길목에서, 문득 선배 교수님들께 묻고 싶은 질문 하나가 떠오릅니다. 긴장과 설렘으로 맞이했던 첫 학기와 계절이 지나가고 다시 새로운 학기와 계절이 찾아오면, 신입 교원을 감싸고 있던 시간과 계절, 새로움과 반기움의 빛깔 또한 거짓말처럼 사라지게 되는 것이지요? 지속하게 할 수 있는 해안은 없는 것이지요?

저는 한국 현대시론을 공부하고 「김수영과 조태일의 시에 나타난 정치성 비교 연구」라는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학위 논문을 준비하던 당시 저에게 있어 김수영은 시를 혁명하기 위하여 삶을 소진한 시인이었으며, 조태일은 현실을 혁명하기 위하여 시를 소진한 시인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결을 가진 두 시인의 시를 읽어가는 동안, 감성은 김수영의 편으로 기울어 가고, 이성(理性)은 조태일의 편으로 기울어 가면서 갈등 아닌 갈등을 겪었던 순간들이 떠오릅니다. 감성과 이성의 극적인 타협 덕분에 결국 두 시인을 한 자리에서 다루게 되었습니다만, 타협의 공은 지도교수님께 돌려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평가는 둘 중 하나를 갖추면 되지만, 연구자는 둘 모두를 갖춰야 한다”고 늘 촌철살인의 말씀을 건네 주셨던 까닭입니다.

박사학위 이후에는 전남대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BK21 사업단에서 박사후연구원을 거쳐 학술연구교수로 참여하였습니다.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사업단에 참여했던 기간 동안 얻었던 아름답고 값진 경험과 성과를 떠올려 봅니다. 때로는 즐겁게, 때로는 벅차게, 그러면서 매 순간, 큰 걸음은 아니더라도, 마침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장(growth)의 과정을 대학원 연구자들과 함께 나누었던 시간들은 분명 아름답고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또한, 지역어문학을 어젠다로 삼은 사업단의 아낌없는 지원과 배려에 힘입어 광주·전남의 지역문학에 대한 연구를 안정적으로 수행해 나갈 수 있었던 시간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교육부 표창의 영예를 안게 된 것도 분명 아름답고 값진 성과였다고 하겠습니다.

언젠가 ‘평론가K는 광주에서만 살았다’라는 제목의 책을 인상 깊게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지금까지 오롯하게 광주에서만 살아왔고, 특히 전남대에서 보낸 시간은 어느새, 그리 길지 않게 살아온 제 나날들의 절반을 훌쩍 넘길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은 기억과 경험을 기록으로 남길 수 있을 만큼 광주를, 전남대를 따뜻하게 보듬으며 살아오지는 못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글을 쓰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세밀 서랍에 조심스럽게 포개어 두고서, 새해의 기운을 빌어 새로운 다짐을 꺼내어 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주어진 나날살이 속에서, 광주를, 전남대를 따뜻하게 보듬는 삶을 실천해 나가자는 다짐 아닌 다짐을 말입니다.

마침내 제게 주어진 지면의 끝이 보입니다. 이렇게 두서없는 생각들을 자유롭게 펼쳐 보일 수 있도록 따뜻한 관심과 소식지 지면을 아끼지 않으신 인문대 학장님, 특별하지 않은 내용을 흥미롭게 읽어주실 인문대의 여러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학기와 계절 앞에서 자신을 빛내 주던 ‘신임’이란 두 글자와 석별을 앞두고 있는, 인문대 신입 교원의 한 사람으로서, 푸른 빛움의 해를 맞이한 올해, 빛고를 광주와 용봉골 전남대의 무궁한 발전을, 재건축 인문대의 찬란한 약진을 기원해 마지않겠습니다. 더불어, 늘 체온보다 높은 다정(多情)의 온도를 체감할 수 있게 해주신 국문과 선배 교수님들의 평안을 진심으로 염원해 올린 사실에 대해서는 수줍은 비밀에 부쳐두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과

국어국문학과

4년 만에 '정기 학술 조사' 성료...140명 참석



4년 만의 국어국문학과(학과장 조재형) 지역어문학·문화의 미래자원화를 위한 정기 학술 조사가 11월 3~4일 양일 간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이번 행사에는 총 140명의 재학생과 신입생이 참가했다. 지역어문학·문화의 미래자원화를 위한 아카이브 기획 운용을 목표로 목포·보성·화순 일대의 문학관 및 문학지 조사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국문인의 날' 개최

지난 11월 16일 학생회에서 개최한 '국문인의 날' 행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약 50명의 학생과 7명의 교수진이 참석한 이번 행사는 국어국문학과와 한해를 마무리하며 국문인들의 화합하는 뜻깊은 시간으로 이어졌다. 이번 행사는 1부 2023학년도 국어국문학과 정기학술조사 결과보고서 공모전 및 박지은·이미란 작가 창작 작품 공모전 시상식, 2부 연구회 활동 결과보고, 3부 레크레이션 순으로 진행되었다.

영어영문학과

전공기반 진로 프로그램 <소모임 톡(TALK):소통>



영어영문학과(학과장 김성훈)에서는 2023학년도 2학기 2023년 국립대학 육성사업 '단과대학 맞춤형 자율혁신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영어영문학과 전공기반 진로 프로그램을 운영한 바 있다. '소모임 톡(TALK):소통'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프로그램은 영어영문학과 재학생 3~4명이 소모임을 이루어 영어영문학과 교원과 간담회를 갖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문학 작품 분석, 진로 방향, 시사 등의 관심사로 결성한 소모임이 주제에 맞게 면담 교원을 섭외하여 해당 주제를 가지고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영문인의 날' 개최

영어영문학과에서는 12월 1일 '2023 영문인의 날'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학생자치위원회의 주최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영어영문학과와 2023년을 돌아봄과 동시에 'Thanks Giving'의 테마로 진행되어 칠면조 만들기, 셰익스피어 새롭게 보기 등의 체험부스를 운영하고, 각종 콘테스트의 시상식이 있기도 하였다.

독일언어문학과

전문가 초청 특강 제5회 전남게르마니아 개최



독일언어문학과(학과장 조경)는 2023학년도 국립대학 육성사업의 지원을 받아 유라시아 인문융합연구소와 함께 2023년 9월 7일부터 11월 9일까지 총 3회에 걸쳐 '지역소멸:극복의 전망과 전남대학교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전문가 초청 포럼을 실시했다. 이 포럼에서는 각각 '지역의 위기가 국가적 위기를 초래하는 이유:위기의 지역, 뭇쳐야 산다', '지역균형 발전과 거점국립대학의 역할', '한국의 미래? 독일 연방제와 지방자치제도'라는 주제로 대한민국 사회에 직면한 가장 큰 문제인 지방소멸에 대해 전문가들의 견해를 들어보았다.

기업탐방 및 진로·취업 캠프 운영

독일언어문학과에서는 학부 전공생들의 경험을 통한 구체적 대학생활 계획 수립과 특강을 통한 진로·취업 역량 설정 및 강화를 위하여 2023학년도 국립대학 육성사업의 지원을 받아 기업탐방 및 진로·취업 캠프를 운영했다. 11월 24~25일 이틀간에 걸쳐 대학생활과 진로·취업에 대한 로드맵을 만들어 보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2024년 동계방학 독일어 캠프 운영

독일언어문학과에서는 학부 저학년 전공생들의 전공 역량을 키우고자 2023학년도 국립대학 육성사업의 지원을 받아 '2024년 동계방학 독일어 캠프'를 개설해 운영했다. 2024년 1월 29일부터 2월 8일까지 2주간에 걸쳐 외국인 교수(시린 아이젤레)와 한국인 강사(강인구·노재봉·이아람)로 이루어진 강사진과 약 30명의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루어졌다.

불어불문학과

2023 프랑코포니문화제 개최



불어불문학과(학과장 이수원)와 프랑스문학·지역학연구소는 국립대학육성사업의 지원을 받아 11월과 12월, 두 달에 걸쳐 '프랑코포니 문화제'를 개최하였다. 이번 문화제에서는 프랑코포니 영화상영회, 페탕크 체험, 프랑코포니 학술발표회, 음식부스, 유학특강, 프랑스어말하기 대회 등과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전남대학교 구성원 및 지역민들에게 프랑코포니 문화를 소개했다.

중어중문학과

제35회 중문인의 날 행사 성료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양일간 제35회 중문인의 날 행사가 진행되었다. 첫째 날은 중국문화체험으로 인문대 차 없는 거리에서 마라소떡소떡, 흑당 밀크티를 만들어 인문대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는 부스를 운영하였다. 둘째 날은 중문과 소모임 '악상'의 음악회를 시작으로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했다. 무대 순서 중간에는 학과 교수님들과 함께하는 이벤트도 준비하여 학생-교수간 즐거운 추억이 될 수 있도록 놀거리도 마련하여 큰 호응을 이끌었다. 마지막 무대는 소모임 '끼'의 <흥부와 놀부> 중국어 연극으로 관객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선사하였다.

중어중문학과 교·강사 워크숍 실시

중어중문학과(학과장 문유미)는 '중어중문학과 제1회 교·강사 워크숍'을 진행했다. 이번 워크숍은 '시 시대, 새로운 교수법과 소통 방식의 이해'를 주제로 시 시대 추세에 지속적인 관심을 고취하고 새로운 교수법을 공유하는 취지에서 진행되었다. 첫 번째 이여빈 학술연구교수(중국인문연구소)가 '오디오북을 활용한 중국어 수업설계'에 이어서 이가영 학술연구교수(아시아문화연구소)가 '텍스트(Textom)를 활용한 코로나19 시기 한국 언론의 중국 관련 이슈 분석'을 주제로 발표했다. 박아라미 강사(라미인력개발원)의 '시시대 기질로 알아보는 공감과 소통' 강연은 교·강사 모두 참여할 수 있어 큰 호응을 얻었다. 정년퇴임을 맞은 이주호 교수와 민혜란 강사를 위한 기념패 전달식으로 워크숍은 종료되었다.

2023학년도 동계학기 기초보호학문 해외 단기 파견



중어중문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2024년 1월 8일부터 1월 21일까지 중국 운주시 운주대학에서 어학연수 및 문화체험을 진행했다. 이번 단기 파견에 중어중문학과 학생 31명이 참여하였고 파견 기간 동안 맞춤형 어학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전지 체험, 만두 빚기, 운주시 탐방 등 중국 문화 체험시간을 가졌다.

일어일문학과

일본문화연구센터, 제24회 일본연구포럼

2023년 9월 21일, 전남대학교 김남주 기념홀에서 일어일문학과(학과장 김정례 교수)와 일본문화연구센터 주최,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원장 정미라, 철학과 교수) 후원으로 제24회 일본연구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은 마쓰타 가즈노부(光田和伸) 국제일본문화연구센터 전 교수, 교토레가(連歌)회 고문을 초청해 '마쓰오 바쇼의 여행과 하이쿠의 세계'라는 주제로 일본 바쇼의 세계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일문인의 날' 개최



일어일문학과에서는 '일문인의 날' 행사를 진행하였다. 이번 행사는 11월 9~10일 이틀간 진행했으며, 첫날에는 타코야끼와 오뎅을 판매하는 음식판매부스 및 오마모리(お守り) 만들기, 에마(馬)걸기, 오미쿠지(おみくじ) 뽑기 체험 부스 등으로 구성했으며, 둘째 날은 일본 골든벨, 레크레이션 등 일어일문학과 학부생들만의 활동으로 구성되어 진행했다.

사학과

'나의 역사문화지도 만들기' 강연 및 답사 진행



사학과(학과장 송한용)에서는 2023년 국립대학 육성사업 단과대학 맞춤형 자율혁신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나의 역사문화지도 만들기'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프로그램의 추진목적은 역사유산과 관련된 사료(史料) 공학프로그램, 디지털이미지 등을 결합하여, 역사학의 실제적 활용도를 제고하는 것과 지리정보시스템(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을 이용하여 역사적 공간 정보를 파악하고 이를 가공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는 것에 있다. 이를 위해 '디지털역사학과 역사지리정보시스템(HGIS)의 현황'과 '시역사인물의 가능성과 전망' 등의 특강을 진행하였다. 9월 21부터 23일까지 2박 3일간 역사문화지도만들기 실습과 답사를 진행하였다. 사학과 교수와 학생을 포함하여 약 80여 명이 답사에 참여했으며 인천 개항장 누리길부터 강화 고려궁지, 수원 화성 등 여러 장소의 문물을 탐구하였다.

'사학제전' 개최



'사학제전'은 사학과의 4개 연구회(한국사, 동양사, 서양사, 덩범주초)가 1년 동안 진행한 학습성과를 공유하는 학부 과정 최대의 학술행사이다. 사학과는 11월 17일 '사학제전'을 진행하였다. 2023년 '사학제전'의 주제는 '관동대학살 100년, 아픔을 기억하며'를 주제로 4개 연구회 학생들이 직접 선정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었다. 한국사 연구회는 '체노사이드 관점에서의 여순사건', 동양사 연구회는 '관동대진재 조선인 학살에 대한 한국인과 일본인의 기억 고찰', 서양사 연구회는 '교육과 영화를 통한 홀로코스트의 기억 방식', 덩범주초 연구회는 '체노사이드의 이해: 유적과 다크투어리즘 사이의 관계성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였다. 발표 후 학생들 간의 적극적인 질의응답을 통해 사학도로서의 역사인식과 비판적 지식인으로서의 진지한 성찰을 경험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행사가 될 수 있었다.

철학과

‘현암 이을호 기념 강좌’ 개최

철학과(학과장 김상봉)는 2023년 국립대학 육성사업 인문학 기반 융복합 교육 활성화 프로그램 ‘현암 이을호 기념 강좌’를 2회 개최했다. 제1회는 10월 18일 인문대 1호관 이을호기념강의실에서 전주대 오종일 명예교수가 ‘현암 선생의 삶과 학문’이라는 주제로, 제2회는 11월 29일 같은 곳에서 전남대 최대우 명예교수가 ‘현암 이을호의 사상의학 연구’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다. 본 강좌는 매회 80여 명의 청중이 참여해 성황리에 진행됐고, 강좌 참여자의 만족도는 4.75점(5점 만점)으로 높았다. 이번 강좌는 한국철학과 실학연구의 선도자로서 K철학의 가능성을 앞서 보여준 고(故)현암 이을호 교수의 연구를 21세기 K철학으로 계승·발전시키고자 기획됐다.

학문후속세대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

철학과는 철학연구교육센터 근대호남유학연구단과 함께 2023년 12월 8일 인문대 1호관 이을호기념강의실에서 학문후속세대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호남유학과 K철학의 미래’라는 주제로 철학과 이원석 교수의 강연으로 진행됐다. 철학과는 K-철학 정립을 위해 호남유학자선 등의 디지털화 사업 진행을 목표로 BK21 FOUR사업을 진행했었고, 2023년에는 현암 이을호 기념 강좌를 진행했다. 자생적인 K-철학을 정립하려는 시도는 향후 학문후속세대가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기 하기 때문에, 학과는 관련 분야를 연구하고 있는 철학연구교육센터 근대호남유학연구단과 함께 이번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2023년 2학기 철학과 대학(원)생 학위 논문 졸업논문 공개발표회 개최

철학과는 11월 3일 일반대학원 학위청구논문 심사를 위한 공개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발표회에서는 추교준(박사과정, 지도교수:김상봉, 통칸트의 도덕철학에서 인격의 문제), 이무영(박사과정, 지도교수:김상봉, 형상 없는 물질(Materia sine forma):데카르트의 물질론), 한정선(석사과정, 지도교수:김상봉, 단도 예술철학의 근본 문제-「일상적인 것의 변용」을 중심으로)이 발표했다. 또한 학과는 12월 1일 학부 졸업논문 공개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발표회에서는 박선주(지도교수:박구용, 도시성 회복의 대안으로서 도시 인문학과 지역 커뮤니티-호르크하이머의 「도구적 이성 비판」을 중심으로) 외 21명의 학생이 발표했다.

[JOB 로드맵]

2023년 2학기 학생취업활동 응시료 지원 사업

철학과는 철학과 학부생의 취업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취업 준비에 도움을 주고자 Job로드맵 응시료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 본 사업은 철학과 재학생에 한해 2023년 3월~12월 중순 중으로 취득한 각종 어학 및 자격증에 대한 시험 응시료의 일부를 지원한다.

한문고전번역협동과정

2023학년도 전기 석·박사학위청구 논문 공개발표회



한문고전번역협동과정(주임교수 장춘석, 중어중문학과 교수)은 10월 26일에 일반대학원 석·박사학위청구 논문 심사를 위한 공개발표회를 열었다. 이번 발표회에서는 석사과정 안명진(신작(申緝)의 「시차고(詩次故)」, 역주-주남·소남·패풍), 오지연(吳竣의 《竹南堂稿》詩 選譯), 유지원(역주 《홍도유교(弘道遺稿)-권7 잡저(雜著), 권8 잡저(雜著)》)를 발표하였다.

호남학과

대학원 포스터 발표회 개최



호남학과(주임교수 김경호)에서 9월 23일 대학원 포스터발표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발표회는 호남학연구원 창립 60주년 기념행사의 한 부분으로 호남학과 대학원생들이 연구한 내용에 대한 포스터발표로 진행되었다. 총 6명의 대학원생이 발표하였으며, 발표자들에게는 소정의 장학금이 지급되었다.

2023학년도 전기 석박사 학위 청구논문 공개발표회

호남학과는 11월 8일 학과 교수들과 대학원생이 참여한 가운데 2023학년도 전기(2024년 2월 졸업 예정) 석박사 학위청구 논문공개발표회 및 예비발표회를 진행하였다. 박사학위청구 공개 발표에서는 강성호 박사수료생이 ‘일제강점기 전남 순천의 지역언론운동’을 발표하였고, 이어진 예비발표에서는 윤예현 석사수료생이 ‘광주통일미술제(안티비엔날레) 연구’를 발표하였다. 발표 후에는 질의응답과 토론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주고 받았다.

호남학과 대학원 월례발표 개최

호남학과(주임교수 김경호 교수)에서 12월 8일 대학원 월례발표를 진행하였다. 이번 발표는 대학원생들의 관심 연구분야와 서로의 생각을 자유롭게 토론하고 구성원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듣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대학원생이 그동안 연구한 연구주제에 대한 발표와 함께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자리로 마련된 이번 발표에서는 김종순 박사과정생이 ‘16세기 나주목사의 역할과 활동에 관한 연구-학봉 김성일 목사의 재임 시기를 중심으로-’를 발표하였고, 방순희 박사과정생이 ‘근대 조선의 교육연구’를 발표하였다. 이어 최아리 석사과정생이 ‘민민의 기록으로 본 식민지 구례지역사’를 발표하였으며, 윤예현 석사수료생이 ‘ACC 아카이브에서 광주 비엔날레까지’를 발표하였다.

연구소

아시아문화연구소

‘동아시아의 호남인과 호남문화’ 학술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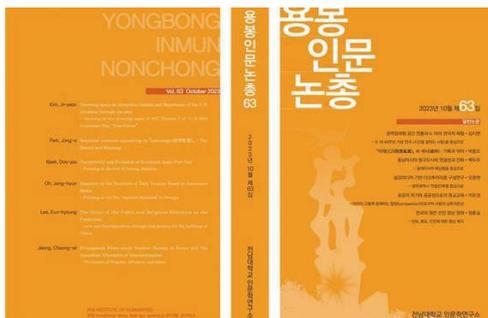


아시아문화연구소(소장 김용의, 일어일문학과 교수)는 2023년 11월 25일 김남주 기념홀(Zoom 동시 진행)에서 <동아시아의 호남인과 호남문화>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전남대 호남학연구원, 재외한인학회와 공동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일본, 중국 등 동아시아 지역과 호남 지역 간의 인적 및 문화 교류를 학술적으로 조명하고 호남 지역이 동아시아 문화교류의 큰 거점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고찰했다.

대회는 노무라 신이치(野村伸一, 게이오대 명예교수)의 기조강연 ‘호남 문화—광경·동아시아 해역문화·판소리의 마음—(湖南文化考:光景 東アジア海域文化 パンソリのこころ)’을 시작으로 김환기(동국대 교수), 월경/훈종의 코리안 디아스포라 문학, 임영언(조선대 교수), 재일동포 호남인 기업가의 창업과 기업가 정신, 명동호(전남대 학생운동연구소 연구원), 일본 속 전라도 음식문화-홍어를 중심으로-, 장경률(중국 연변일보 논설위원), 중화대지에서 호남인들의 족적과 호남문화 등 4개의 주제발표가 이루어졌다. 종합토론에는 김경학(전남대 교수), 이주노(전남대 교수), 조태성(전남대 교수)이 패널로 참여해 주제발표자들과 열띤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인문학연구소

『용봉인문논총』 제63집 발간



인문학연구소(소장 신해진, 국어국문학과 교수)는 10월 31일에 『용봉인문논총』 제63집을 발간하였다. 이번 63집은 언어·문학·문화 전반의 주제를 아우르는 6편의 논문이 수록됐다.

글로벌 디지털 환경과 문화 다중심 국제학술대회

인문학연구소는 1월 18~19일 전남대학교 인문대학 1호관 김남주 기념홀에서 KOR컨소시엄과 국제학술대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학술대회 주제는 ‘글로벌 디지털 환경과 문화 다중심’으로 18일에는 7명의 발표 및 토론이 있고, 19일에는 8명의 발표 및 토론이 진행되었다.

이자벨 사를리는 16~19세기 몽골 지역 내 존재하던 이동사원을 통해 유목민족과 불교, 특히 유목민족의 이동생활과 불교의 정주성이 어떤 역사적 상관관계를 맺었는지 심도 깊게 연구한 성과를 발표했다.

인문학연구원

국제학술대회 개최



인문학연구원(원장 정미라, 철학과 교수)은 오늘날 우리 사회의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대안적 친밀성과 소속감을 고려하는 다양한 커뮤니티 안에 공존하는, 여러 시간성과 공간성을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2023년 12월 8일 온라인 ZOOM을 통해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미국 콜럼비아대 Jack Halberstam 교수의 기조강연을 필두로 캘리포니아 주립대의 안연태 교수, 시안교통 리버풀대의 김곤 교수 등 총 7개의 발표가 이루어졌다.

지역인문학센터 인문주간 개최



인문학연구원 지역인문학센터는 2023년 제18회 인문주간을 맞아 10월 31일~11월 3일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하였다. 광주시민 ‘시’ 낭송회는 인문대1호관 김남주기념홀에서 시민, 학생을 모시고 시를 낭송하고, 배한봉 시인을 초청하여 ‘시가 깃들 삶-생태의 노래’라는 주제로 강연회가 진행되었다. 영화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는 고레이다 히로카즈의 <어느 가족>을 시작으로 황윤 감독의 <어느 잡식 가족의 딜레마> 등 총 4편의 영화를 광주 독립영화관에서 상영하였다.

### 2023 인문사회통합 성과확산센터 성과발표회 참여



인문학연구원은 12월 28~29일 양일간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열린 <2023 인문사회통합 성과확산센터 성과발표회>에 참여하였다. 총34개의 인문·사회 연구소 및 사업단이 모여 현장 발표 및 동영상을 통해 각 사업단의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인문학연구원은 그간 출판되었던 학술지 가족과 커뮤니티, 번역 총서 지역의 윤리 등 15권을 전시하였다.

### 호남학연구원

### ‘호남학연구원 창립 60주년 기념의 밤’ 행사 개최



호남학연구원(원장 정명중 교수)이 2023년 창립 60주년을 맞이하여 9월 23일 ‘호남학연구원 창립 60주년 기념의 밤’ 행사를 개최하였다. 호남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종합연구를 표방하고 “지역과 세계,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보편적 지역학으로서의 호남학을 정립하고 있는 연구원의 60주년을 자축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행사는 개회와 함께 정명중 원장의 개회사, 정성택 전남대학교 총장님의 환영사, 강정채(전 전남대학교 총장)–천득염(한국학호남진흥원 원장)–김신중(전 호남학연구원장)–이성원 교수(인문대학 학장) 등 내빈의 축하 인사로 진행되었다. 이어 연구원 60주년의 연혁을 영상을 통해 만나보고, ‘호남학연구원 미래비전 선포’와 함께 축하 퍼포먼스로 행사를 마무리하였다.

이번 행사를 통해 호남학연구원 60년의 기쁨과 감격 그리고 회한을 여러 선생님들과 더불어 나누고, 지역과 세계,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호남학연구원 100년의 미래와 비전을 가능하는 뜻 깊은 자리를 마련했다.

### 2023년 협정 연구소 국제학술대회 개최



호남학연구원과 중국 안휘대학 휘학연구중심(徽學研究中心), 일본 오키나와국제대학 남도문화연구소(南島文化研究所)가 ‘분권시대 동아시아의 로컬연구’를 주제로 각 연구소의 지역학 연구 현황에 대한 소개와 현재의 관심 주제를 공유하는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정근식 교수(서울대 사회학과)의 ‘동아시아 지역연구의 길을 따라서: 냉전 분단 체제론의 윤곽 만들기’라는 주제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안휘대학의 리텐 교수가 ‘풍수를 외부인과 공유할 수 있습니까?—명청 이래 한회 남부 지역의 이성 함장’에 대해, 오키나와국제대학의 고히마 다케루 교수가 ‘전후 오키나와의 자치와 식량: 정책 주체로서의 류큐 정부에 주목하여’라는 주제를 이야기하였다. 호남학연구원에서는 김창규 교수가 ‘호남절의론과 지역의 주체화’를 주제로 발표하였고, 발표 이후에 최유준 교수(호남학연구원)가 좌장으로 참석하여 세 연구소 소장들과 함께 세 연구소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국제협력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다.

### ‘제9회 영호남의 대화’ 학술대회 개최



호남학연구원과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원장 정병호 교수)이 공동으로 주관하여 ‘제9회 영호남의 대화: 영호남의 문화유산’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 학술대회는 지역을 넘어 화해와 협력, 상생을 위해 마련된 자리로 2015년 이후 양 연구원이 매년 광주와 대구에서 상호 교차하여 개최하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는 ‘영호남의 문화유산’을 주제로 앞 세대에서 이어 받아 후대에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문화유산에 대한 탐구와 가치의 재발견을 모색하는 자리로 꾸며졌다. 발표는 양 연구원에서 3명의 연구자가 누정과 원림·사찰·설화·고전 문학·현대 극장 등 고대에서 현재에 이르는 다양한 문화유산에 대해 발표하였으며, 이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사업단

국어국문학과  
지역어문학 기반 창의융합 미래인재 양성 교육연구단

제5회 포스터발표회 개최



지역어 문학 기반 창의융합 미래인재양성 교육연구단(단장 장일구)에서 제5회 대학원생 포스터 발표회를 개최하였다. 1월 15일 오후 3시부터 공과대학 4~7호관 사이 인문대학 부스에서 진행된 발표회에서 교육연구단 소속 대학원생 연구자들의 포스터 발표회를 진행하며 활발한 연구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제10회 참여교수 간담회 개최

연구단에서는 11월 16일 제10회 참여교수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공과대학 4호관 코스모스홀에서 15시부터 약 1시간 30분 가량 진행된 간담회에서 국문과 소속 정민구 교수는 '어느 인문학자와 나누는 詩詩한 이야기'라는 주제로 청중들과 활발히 소통하며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제13회 해외한국학클래스 개최

연구단에서는 핵심역량페스티벌의 첫날 첫 번째 행사로 제13회 해외한국학클래스를 개최하였다. 12월 15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행사에서 솔즈베리대학교 한은정 교수는 '미국에서의 한국학 연구 동향'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고 질의 응답을 진행하며 대면으로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제11회 참여교수 간담회 개최

연구단에서는 제11회 참여교수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12월 18일 10시부터 2시간에 걸쳐 진행된 행사에서 국문과 김현정 교수는 '글쓰기를 연구하는 즐거움'이라는 주제로 강연하였다.

제3회 해외 공동연구 포럼 개최



연구단에서는 제3회 해외공동연구 포럼을 개최하였다. 12월 18일 오후 4시부터 인문대1호관 김남주기념홀에서 온라인 zoom을 병행하여 진행된 포럼에서는 Duong Quynh Thu(하노이 국립대 인사대학교), Dong Thi Yen(하노이 국립인문사회과학대학교 대조언어학과) 연구자들이 전남대와 연구 진행 상황을 발표하며 학술적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제12회 전문심화클래스 개최



지역어문학 기반 창의융합 미래인재 양성 교육연구단에서는 12월 19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제12회 전문심화클래스를 개최하였다. 강연자인 고려대학교 엄태웅 교수는 '학제 간 융합을 위한 연구 방법론'을 주제로 인문대1호관 김남주기념홀에서 대면으로 강연을 진행하였다.

제13회 전문심화클래스 개최

12월 19일 오후 1시 30분부터 약 2시간 동안 제13회 전문심화클래스를 개최하였다. 핵심역량 페스티벌의 일환으로 진행된 전문심화클래스에서 성균관대학교 박진영 교수는 '번역과 동아시아, 세계문학 다시 쓰기'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였다.

### 제12회 공공실천클래스 개최

연구단에서는 제12회 공공실천클래스를 개최하였다. 12월 19일 오후 4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된 공공실천클래스에서 연세대학교 최기숙 교수는 ‘글로벌 디지털 환경 속 문학 개념의 확장적 재구성’이라는 주제로 대학원생들과 질의 응답을 진행하며 활발하게 강의하였다.

### 제13회 공공실천클래스 개최

지역어문학 기반 창의융합 미래인재 양성 교육연구단에서는 제13회 공공실천클래스를 개최하였다. 12월 20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인문대학 1호관 김남주기념홀 및 zoom을 통한 온라인을 병행하여 국립국어원 강미영 과장이 강연을 진행하였다. ‘생성 AI시대의 국어정보화와 언어 정책’을 주제로 정보화와 관련된 실제 프로그램과 테스트를 통해 활발한 질의 응답이 이루어졌다.

### 제13회 창의융합클래스 개최

연구단에서는 제13회 창의융합클래스를 개최하였다. 12월 20일 오후 1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인문대학 1호관 김남주기념홀 및 zoom을 통한 온라인으로 병행된 행사에서 중앙대학교 신동일 교수는 ‘대중문화에서 보이는 언어 경관’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며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 제14회 해외한국학클래스 개최

연구단에서는 제14회 해외한국학클래스를 개최하였다. 12월 20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인문대학 1호관 김남주기념홀 및 zoom을 통한 온라인으로 동시 진행된 행사에서 나폴리 동양대 김정아 교수는 ‘이탈리아에서의 한국학 연구의 동향’이라는 주제로 대학원생들과 질의 응답하며 뜻깊은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 제5회 국제학술대회 개최



연구단에서는 1월 18~19일 이틀에 걸쳐 제5회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전남대학교 KOR컨소시엄과 인문학연구소의 지원으로 이루어진 국제학술대회에서는 14명의 발표자가 ‘글로벌 디지털 환경과 문화 다중성’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였다.

### 영어영문학과 영어권문화기억큐레이터양성교육연구단

### 2023 G-Fair 포스터 발표회



영어영문학과 영어권문화기억큐레이터양성교육연구단(단장 김연민)은 연구와 학문적 성과를 공유하고 단과대학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 11월 15일 교육융합관 입구공간에서 2023 G-Fair 포스터 발표회에 참여하였다. 참여대학원생 6명이 연구주제를 포스터로 제작하고 학부생들에게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발표회를 통해, 대학원생과 학부생이 소통하고 학문적으로 교류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 2023년도 한국영어영문학회 국제학술대회 주최

연구단은 해외 유관기관과의 학술교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정기 학술행사를 운영하여 참여대학원생의 국제적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자, 한국영어영문학회와 공동으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12월 15~16일 한양대학교 인문대에서 ‘Literary Inquiry as 21st Century Vocation: Reclaiming Aesthetics, Criticism and Pedagogy’를 주제로 진행되었다.

### Adam Braun 교수 초청 글로컬 공감 블록세미나

연구단은 2월 14~15일 캘리포니아 루터란 대학(California Lutheran University)의 Adam Braun 교수를 초청해 문화기억 특강을 진행하였다. ‘Queer Studies’을 주제로 최근의 퀴어 연구의 동향을 소개하고 주요 의제와 개념을 짚어보는 강의를 진행하였고, 교육연구단 참여대학원생은 현재 사회가 당면한 문화갈등의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 BK 성과 공유 워크숍

연구단은 3년간의 교육 및 연구 성과와, 참여교수 및 대학원생들의 연구 주제 발표를 통한 최신 연구 동향을 공유하고자 성과 공유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2월 1~2일 양일간 제주에서 진행되었으며, 제주 4·3 평화공원, 강정평화센터 방문하며 문화기억 큐레이팅 역량을 강화하며, 문화기억의 이론적 배경을 확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 신간 도서

**가까운 사이**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23. 2.

류도향 장복동 조경순 최성만 김청우 김민영 박준상 정성훈 김영걸 정진범 이원석 최종훈 오창환 김연민 김경호 한익승 박구용 이정란

『가족커뮤니티의 개념들 - 관계편』은 오늘날 가족과 공동체의 변화를 ‘관계’의 관점에서 새롭게 성찰하려는 시도입니다. 이 책은 혈연, 지연, 학연, 민족 등의 집단동질성에 기반했던 공동체서사를 다원화하고, 나아가 민주적이고 평화로운 관계의 형식을 상상하고 발명하는 데 필요한 인문학 개념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가족과 공동체의 변화 과정에서 출현하는 파열과 탈구

를 서사화하고, ‘이미 그러나 아직 (already not yet)’ 우리에게 오지 않은 공동체를 담론화하기 위한 일종의 방법론적 도구로서 1권 ‘가까운 사이’는 ‘인접성’을, 2권 ‘나와 타자’는 ‘타자성’을, 3권 ‘함께하는 시간’은 ‘지속성’을 재구성한 것입니다. 이 책의 공동연구가 가족커뮤니티에 대한 의미 있는 논의를 확장시키고, 지금 이곳과는 다른 사회에 대한 인문학적 상상력을 일깨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량사의 논쟁(納凉私議論爭) 자료집**

서영이 이원석 이향준 조우진 이형성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23. 6.

이 책은 기정진(奇正鎭)의 『남량사의(納凉私議)』를 둘러싼 논쟁자료 가운데 잡저류 저술 20종을 모아서 편집하고 역주한 『남량사의논쟁(納凉私議論爭) 자료집』이다. 본문에 실린 글들은 저술 연대를 기준으로 시대순으로 배열했고, 저술 연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필자의 생몰 연대와 논쟁의 진행 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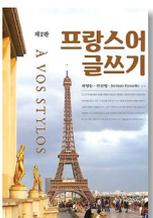
황, 해당 글이 서술하고 있는 내용 등을 중심으로 연대를 추정해서 배치했다. 제1부는 각주를 포함하는 번역문을 실었고, 제2부는 원문을 실었다. 번역문은 간략한 해제를 제시한 다음 번역문을 두었다. 원문은 교열을 거쳐 현대적인 표점 원칙에 따라 표기해서 가독성을 높였다.

**노사학과 문인들의 삶과 사유3**

조우진 서영이 이형성 양순자 박학래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23. 6.

노사학파는 성리학에 대한 이론적 탐구는 물론 조선 말기 국운이 기우는 상황에서 호남 의병 운동 확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진정한 유학자로서의 삶을 보여주는 사표(師表)이다. 하지만 그들의 삶은 근대 사회에 유학의 쇠락을 보여주는 지표(指標)이기도 하다. 유학과 삶의 관계를 고민하는 현재의 우리

들에게 노사학파는 좋은 지적 탐구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노사학파에 대한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근대호남유학총서 시리즈는 노사학파를 연구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좋은 길잡이가 될 것이다.

**Jeremie Eyssette, 『프랑스어 글쓰기』**

하영동 민진영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23. 8.

이 책은 대학에서 프랑스어 초급 과정을 마친 학생들의 쓰기 능력 향상에 초점을 두고 기획되었다. 책은 크게 2부로 구성되어 있다. 18개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제1부는 프랑스어 기초실력을 공고히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글쓰기의 토대가 되는 문법과 문장구조를 정리하였다. 본문에서는 문법 사항이나 구문 구조에 맞는 전형적인 예문을 보이고 연습문제에서는 배운 것을 응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낱말은 가능한 한 빈도가 높은 것을 선정하였고, 예문은 일상에서 바로 응용할 수 있는 것들로 선별하였다. 프랑스어에 대한 기본이 갖추어졌다고 생각하는 학생은 이 단원을 건너뛰어도 무방하다. 20개의 단원으로

구성된 제2부는 학습자가 주어진 참고 자료를 이해하고 이를 모델로 하여 직접 다양한 유형의 텍스트를 작성해 보게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모방을 통한 창조적 글쓰기라 할 수 있다. 기본적인 서식 작성부터 논증적 글쓰기까지 가능하도록 단원을 구성하였고, 참조 자료는 가능한 한 21세기의 프랑스의 사회와 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선정하려고 하였다. 한편, 혼자 공부하는 학생을 위하여 참조용으로 모범 답안을 제시하였다. 제시된 답은 문법 사항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는 여러 가능한 답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것을 밝혀둔다.



### 고전 읽기의 즐거움 플라톤 『심포시온』

이강서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23. 8.

플라톤 『심포시온』의 부제는 '사랑', 희랍어로 에로스(eros)이다. 이때의 에로스, 첫 글자를 소문자로 시작하는 에로스는 보통명사이다. 첫 글자를 대문자로 시작하는 에로스(Eros)가 있다. 이 에로스는 고유명사로서 그리스 신화의 에로스 신으로 아프로디테의 아들이자 '사랑의 신'이다. 흔히 『심포시온』은 '사랑'을 다루는 책으로서 '성서' 다음으로 널리 읽혔다고들 말한다. '플

라토닉 러브(Platonic love)'라는 표현이 있다. '플라토닉 러브'는 '플라톤이 생각하는 사랑', '플라톤이 말하는 사랑'이요, 여러 대화편들 가운데 집중적으로 '사랑'을 거론하는 대화편은 『심포시온』, 『파이드로스』, 『리시스』인데 역시 『심포시온』이 첫 손에 꼽힌다. 그러니 '플라토닉 러브'라는 표현에 대한 정확하고도 의미 있는 이해는 '플라톤이 『심포시온』에서 보여주는 사랑'이다.



### 한·중 문화 공간과 디아스포라

임한모 엄영옥 전영의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23. 8.

공간과 장소는 다양한 인문학적 메시지를 함축한다. 근대성의 기획에 의해 변형되고 지워진 우리의 삶의 모습을 문학공간 안에서 성찰할 수 있다. 제국주의를 넘어선 21세기 제국 안에서 타자화된 디아스포라와 혼종성, 인종적 위계질서와 제도, 인종과 종족성의 문제를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총 8장으로 이루어진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은 한국과 중국의 공간 안에서 민중적 주체들이 가지고 있는 힘, 디아스포라의 혼종성과 문화적 창조성 등 동질성의 정치에 저항하는 힘들이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을 인지하기를 바란다.



### 가족-새로운 「친밀권」을 찾아서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 HK+ 가족커뮤니티 사업단 한국문화사, 2023. 9.

이 책은 자유에 대한 물음이라는 큰 주제 중 하나로 가족을 접근하고 있다. 또한 가족-자유 관계를 가족에 대한 자유, 그리고 가족이라는 자유 양가적으로 접근하면서 단순히 가족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닌 가족 관계에 내재한 친밀권을 새로운 자유의 가능성으로 제시한다.

이 책은 오카노 야요 책임편집으로 가족을 주제로 이루어진 대담과 논고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문학연구원 HK+사업단 일반연구원인 일본 히로사키대학의 이수진 교수와 인하대학교 박경희 교수가 공동 번역하였다.



### 일본의 가면과 가면극

김용의 외 국립민속박물관, 2023.10.

책 '일본의 가면과 가면극'에는 '고토 카구리', '고시키지마의 도시몬' 등 일본 가면극 24건이 실렸다. 일본 가면극은 귀족이나 무사 등 지배계급에 의해 발전한 기가쿠멘, 부가쿠멘 등과 민

간에서 발전한 사루가쿠멘. 민간 축제가면, 양가면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지배층 중심 가면극은 예술적 경향이, 민간 중심 가면극은 민속연희적 경향이 강하다.



### 요괴가 노리는 인간의 신체

김용의 외역 민속원, 2023.11.

이 책은 인체를 노리는 '보이지 않는 요괴'에 대해서 일본인이 어느 정도 상상력을 발휘하였는지, 주로 그 시각적 이미지에 주목하고자 하였다. 이 책의 특징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다. 첫째 젠더 관점에서 '요괴의 표적이 되는 인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각각의 이미지에 사회적 모순과 약자의 처지가 상징적으로 반영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둘째 향후 지역적 범위를 확대하여 요괴와 인체의 상관관계를 비

교하며 논하는 연구 가능성과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인간의 신체를 노리는 요괴'는 무섭고 절망적인 인상을 줄 수가 있지만, 사람들의 웃음을 자아내는 경우도 많다. 일본의 요괴에는 그 대상과 적당한 거리를 두고 즐기려는, 근세에서 근대에 걸친 일본 대중문화의 특징이 반영되어 있다. 한국의 독자들께서 그러한 점도 염두에 두고, 이 책에서 소개한 다양한 그림들을 즐기시길 바란다.

민족시인 김남주  
그의 시와 정신을 기리는 공간

# 김남주 기념홀

개관시간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주말: 오전 10시 ~ 오후 5시  
(5월 한정 개관)

특별개관

신청에 의함  
행사 시에는 기념공간 관람이 제한됨



김남주기념홀 운영위원회